

“돌 버릴 줄 알 때 수보이죠”

산문박의 禪

바둑 프로 9단 서능욱



삼화·이기선

세상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는 존재

플 한포기·돌 하나도 법신... 아끼는 마음가져야

마음이 상하거나 미운 생각이 나면 저도 모르게 남을 욕하거나 헐치는 행동이 나온다. 고운 마음이나 착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기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불식간에 증오심이나 원한심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대인관계의 살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때를 때를 파손·파괴·쪽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가 적개심이 불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삼보를 비방말라 <不勝三寶>

조금만 큰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또 밝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우물의 물을 나누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한강줄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대산이나 태백산의 하늘갈 샘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이고 인도 사람들은 아육달수를 먹고 살고 있다. 이처럼 한 하늘 아래에서 맑은 비암으로 쉬고 하늘 끝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피로 만 풀면서 살고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나 원수가 있을 수 없다.

내 믿음·남의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제 믿음이 넘쳐 흘러 남의 믿음을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제 믿음이 소중하고 아깝단 것이라면 남의 믿음도 귀하고 존엄한 것이다. 근자에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도 없지만 원각사 탑신의 부처님 보살상을 예리한 도구로 훼손시켰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어찌 불교도의 신불대상인 탑상을 손과 괴멸시킬 수 있단 말인가. 보통 눈으로 보면 돌을 깎아 세운 탑상이 무엇이 신이란 일인가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가에서는 탑상이 중요한 존상물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옛부터 탑상에는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처럼 섬겼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저 석조된 문 문화인듯 하지만 아니 문화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이다. 문화는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의 연륜이 이로써 세진 선대 예술품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석불이건 탱화이건 부도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은 불교인의 신앙적 의지체인 것이다. (범망경)에 삼보를 비방하면 안된다는 불방삼보경(不勝三寶戒)이 있다. 삼보는 부처님, 부처님의 교설, 부처님을 신앙하는 사부중이다.

생각해보자. 부처님은 법신 불로서 진리의 광명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광명의 체성을 현발하려는 마음은 본래부터 우리들이 불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성은 일체 중생이건 누구나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신의 체성으로 우주에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 중생들은 육안으로 인식되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되기에 부처 모습을 존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조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존상은 법신의 다른 모습인 것이 아니라 법신체를 예리한 도구로 파손한다는 것은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남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법한 것이다. 물속의 버러지를 먹어도 살

생죄에 해당하고 풀한포기를 뽑아도 살생죄라고 하는데 불교인의 정성과 신앙이 스며들어 있는 법신체를 손괴하는 것은 뚜렷한 대역죄임에 틀림 없다. 시골의 흙담도 금하게 하면 동네사람들에게 불매를 받고, 비논의 물고를 빼어버려도 태장질을 당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삼의 길에 있는 것이다. 제 것이 아까운 것이라면 남의 풀건도 그만한 값을 갖고 있으므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거나 무조건 내리치는 일은 더욱 나쁜 것이다.

삼보 존경의 의미

우리는 제것의 범위를 확산하여 한다. 동류의식을 키워나가면 저도 모르게 저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있는 생명이요 대상인 것을 깨쳐 알게 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불교 교단의 권위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계명(敕命)만이 아니다. 법신의 존엄함을 우려해 놓이는 것은 일체의 생명을 존귀하게 모시는 마음을 발로하는 것이다. 모든 자연은 법신의 다른 모습이다. 풀, 돌, 물, 이것은 인간의 소유물이고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소유가 잘되지 않고 또한 정복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으면 감압의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인간은 증오하며 원한심의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이것은 곧 손괴, 파괴를 발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인간 마음속에 삼보법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리가 삼보비방을 중지하는 법인이 된다. 법안이 광명처럼 환하게 열린 사탑으로서 하루를 살면 중요적 파괴심이 가라 앉을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 한국기원 4층 대국실에서 서능욱 9단과 김인 9단이 붉게 상기된 채 마주 앉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백을 켜서 9단이 소목으로 포석을 깔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반상위에 깔리고 김 9단 역시 싸움에 응해왔다.

다행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둑판의 싸움꾼이 아니던가. 속으로 패자를 부르면서 왼손에서 굴러가는 엄주에 힘을 주었다. “달력수만 조심하면...”

바둑 전문가 서능욱씨(37). 그의 기록은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입신(入神) 9단이다. 14세에 입단하여 18년 만에 정상에 올랐으니 바둑에 관한 단시간에 일거전을 이룬 것이다. 왕십리로 자리를 옮긴 한국기원에 들어설때까지 ‘신의 사나이’를 찾는 마음에서 흥분까지 일었다.

“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 다. 1단이나 9단이나 프로에게는 기량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프로 9단이지요”라는 인사 말에 9단의 의미를 간단히 목살하는 것이 시원스럽다. 유난히 큰 얼굴이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마냥 통그럽고,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속속속결의 명수답게 신상 탐색의 여유도 주지 않고 바둑에 관해 거침없이 쏟아낸다.

“첫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싸움이나 아니면 실리를 취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판에서 몇번의 승부수를 느낍니까.” “바둑알 한알 한알이 모두 승부수입니다. 이는 곧 유혹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리수를 두거나 싸움을 끌어오면 참지 못하고 ‘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시작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팔정도가 곧 바둑의 정석”

TV바둑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TV바둑프로를 인기프로로 정착시키는데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서 9단에게는 꽤 많은 바둑팬이 있다. 그러나 ‘신의 사나이’ 서 9단도 바둑에서 최대의 걸림수인 달력수만은 피해야 할 것 같다. 아직 국내 13개 타이틀 가운데 하나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은 대부분 달력수에 걸린 때문이다. 16번이나 정상의 문턱에서 꺾였으니 패배에도 달관이 있지 않을꺼야 시한에 켜졌을 때의 심정을 물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안아에게 혼을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순간입니다. 대국장을 나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며 잊어버립니다. 바둑에서 돌을 버릴 줄 알아야 하듯 어디에서나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고수의 힘경이라 생각합니다.” 서 9단에게는 5년전 부인 현인숙씨가 건넨 엄주가 있다. 오른손에 엄주를 차고 왼손으로 엄주를 굴리다보면 마음 보다 더 빠르게 나가는 손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표사다. “엄주가 달력수를 해결해 준다면 기복신앙이요. 바둑에 빠지다 보면 엄주마저도 잊혀 집니다. 이때부터는 얼마나 바른 눈을 가졌느냐입니다. 바른 눈을 가져야 바른 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맞은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둑의 정석은 정도(正道)입니다.” 바르게 보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라는 부처님 가르침 팔정도(八正道)가 바둑의 정석이라는 서 9단의 바둑관이 계속됐다. “바둑의 위기십결(圍碁十訣) 가운데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바둑도 당연하지만 알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듯 바둑판에서의 수는 곧 하나 하나가 공인이다. 1천8백년 전 중국의 동진시대 지도림(支道林)이란 스님은 바둑을 수담(手談)이라 했다. 두사람이 마주 앉아 인으로는 말이 없이, 손으로 바둑알을 움직여 서로의 의사를 표현한다 하여 이른 말이다. 바둑판에서 돌이 치워지고 나면 출현히 태초로 돌아간다. 풍요, 결단, 환희, 고통으로 뒤범벅된 한판의 바둑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자리는 다시 비어버린다. 또다시 이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

“바둑판에서 돌이 치워지고, 풍요 결단 환희 고통으로 뒤범벅된 한판의 싸움도 사라진다. 그 자리는 다시 비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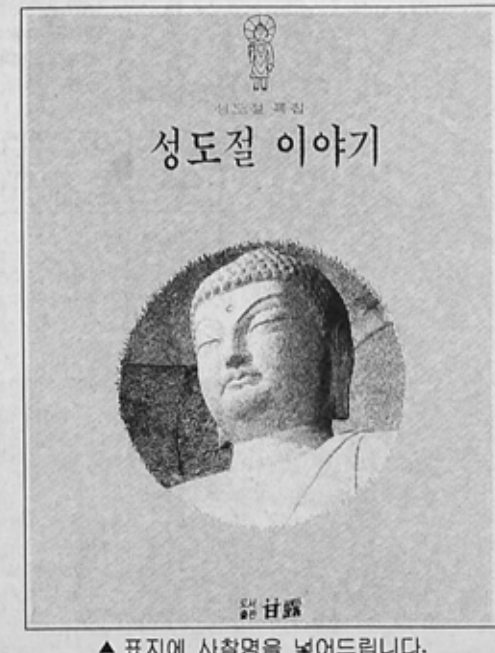
다. 이를 일러 흑자는 기성일여(棋成一如라 한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차분히 가리야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무아경. “바둑은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할 때 좋은 수가 나옵니다.” 서 9단은 일본의 오오다케(大竹) 9단의 기공을 좋아한다. 바둑의 난관과라 불리는 오오다케 9단의 바둑은 너무 맑아 기량에 비해 정석은 나쁜 편이다. 서 9단도 그렇다. 깨끗한 바둑이다 보니 정석이 좋을 리 없다. 금년에도 20승 20패. 간신히 승률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의 시합은 기성전 25국째, 생각 못한 김인 9단의 싸움 판 합세에 손오공 서능욱 9단의 여유가 모처럼 신바람을 냈다. 30수가 이번 시합의 승부수가 됐다. 흑마리를 이용한 바퀴치기로 시합 3시간만에 백 17승 반집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은 제 마음이 깨끗했나 봅니다.” <이준엽 기자>

성도절 법회때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및 법보시 책자 보금안내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성도절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록내용**
-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세벽에 성취한 깨달음
 -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 제4부 성불의 길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 1) 앙굴리말라
 - 2) 용녀의 성불
 - 제5부 성도제의 노래



- ◇ 200권이상 주문시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넣어서 인쇄하여 드립니다.
-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가격/1권당 1,000원
- ◇ 크기/4×6판
- ◇ 책표지에 사찰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정경 (법보시판)	
• 크기/4×6판	• 크기/국판(양장제본)
• 법보시가격/1,500원	• 법보시가격/3,000원
• 편집/가로쓰기	• 편집/세로쓰기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200권이상 주문시)

《온라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 로 출 판 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범륜BD 1층 ☎ (02)723-4306~7 FAX (02)738-8682